

21세기 주도 新産業 육성 추진

산업자원부는 21세기 지식·정보사회에 부응하는 새로운 성장 주도산업을 창출·육성하고 산업구조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해 '신산업 발전비전 및 육성방안'을 수립·시행키로 했다.

산자부에 따르면 최근 우리 경제는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이후 구조조정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으나 미래에 대한 비전제시가 병행되지 않을 경우 발전방향을 상실할 우려가 있는데다 지식·정보사회에 부응하는 새로운 성장 주도산업을

창출, 산업구조 고도화를 촉진하고 우리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해 대규모 실업문제를 해소할 필요성이 핵심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자부는 정보통신·메카트로닉스·항공·우주·신소재·생물산업·영상산업·디자인·패션·경영컨설팅을 중심으로 영국·미국·일본 등 선진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신산업 분야를 발굴하는 한편 정책을 강구키로 했다.

「전문인력 지원봉사단」 발족

산업자원부는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퇴직 기술자 및 경영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전문인력 지원봉사단」을 각 업종 단체별로 발족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의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게되는 많은 고급 기술인력 및 전문 경영인력을 경쟁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도 및 경영혁신 지원을 위한 귀중한 자원으로 활용함으로써 수출증대 및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98 하반기부터 출범 예정인 전문인력 지원봉사

단은 각 업종 분야별로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도 및 경영자문을 하게 되는데, 이를 위해 각 업종 단체별로 참여를 희망하는 퇴직 기술자 및 전문 경영인력으로 인력 풀(pool)을 구성하여 지원봉사단을 결성하게 된다.

전문인력 지원봉사단을 출범시킬 업종단체는 기계공업진흥회, 전자산업진흥회, 섬유산업연합회, 전기공업진흥회, 조선공업협회, 자동차공업협회, 철강협회, 반도체산업협회, 석유화학공업협회 등 모두 9개 단체다.

租稅減免 대상 高度기술 범위 擴大

외국인 투자시 소득세·법인세·취득세 등 각종 조세상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조세감면대상 고도기술사업 범위가 크게 확대된다.

특히 정밀기계 및 신공정, 신물질 및 생물산업, 환경 및 에너지, 건설 및 사회기반시설 등 미래 유망산업과 산업계의 수요가 많은 부문에서의 고도기술사업 범위가 크게 늘어나고 산업지원 서비스가 처음으로 포함된다.

또 기술도입시 기술도입 대가에 대한 법인세·소득세를 5년간 면제해 주는 조세면제대상 고도기술 범위도 크게 늘어난다.

정부는 산업자원부가 마련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감면대상 고도기술사업범위' 조정안에 대해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마친뒤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산업자원부가 마련한 조세감면대상 고도기술사업 범위 조정안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 고도기술사업 범위의 경우 현행 265개 사업범위에서 26개를 삭제하고 172개를 신설해 411개로 확대 조정했다.

이와 함께 32개 기술사업은 그 범위를 확대 조정했고 11개 기술사업은 규격을 상향 조정했다.

이노넷 서비스 고도화

산업자원부는 인터넷을 통해 서비스되는 '종합 기업서비스정보망(Inno-NET)' 정보를 대폭 확충하기 위해 기존 창업·자금·기술 등 9개 분야 이외에 물류·에너지를 추가하며 외국인 공장설립 안내, 투자유망 외국기업정보 등 분야별 특화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키로 했다.

산자부는 기업의 외자유치, 수출촉진, 기술혁신 노력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98 Inno-NET 고도화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산자부는 이노넷에 기존 창업·자금·기술 등 9개 분야 이외 물류·에너지를 추가하며 이노넷에 연계된 기업지원 공공기관을 현재의 127개 기관

에서 153개 기관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외자유치, 중소기업 경영활동, 수출지원, 창업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 외국인공장 설립안내, 對韓투자유망 외국기업정보, 중소기업 및 상품홍보 정보, 신기술 사업화정보 등 분야별로 특화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제공정보를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키워드 방식의 통합검색 시스템을 개발키로 했다.

이와함께 사이버 창업광장을 개설, 예비창업자가 창업과정을 게임형태로 체험할 수 있게 하는 창업시뮬레이션게임, 창업자와 투자자를 연결시켜 주는 아이템페어(Item Fair), 소자본창업을 지원

하는 소호(SOHO) 창업방 등을 구축키로 했다.

유망선진기술사업, 輸出선도기업 육성

유망선진기술기업에 대한 지원이 크게 강화된다. 특히 이들 기업이 수출증대에 선도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지도·지원이 본격 실시된다.

중소기업청은 기술을 선도할 수 있는 기술우수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해 유망선진기술사업 180개 업체를 추가로 지정, 모두 712개로 확대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유망선진기술기업이란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거나 향후 기술개발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지정해 정부가 적극 지원·육성하는 제도이다.

현재 유망선진기술기업은 직접적인 기술지원 외에 공공기관의 우대금리지원(31개 금융기관), 중소기업구조개선자금 지원시 우대(중진공), 산업기능요원 및 외국인연수생 우선 배정, 단체수의계약 물량배정시 우대 등의 혜택을 받고 있다.

중기청은 유망선진기술사업 지원사업이 수출촉진과 기술경쟁력 향상에 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내년부터는 수출경쟁력을 갖춘 업체를 우선적으로 지정하는 한편 지정업체수도 크게 확대할 예정이다.

소기업에 시험·분석수수료 면제

국립기술품질원과 11개 지방중소기업청이 보유한 시험·분석설비들이 소기업들에게 완전 개방된다.

중소기업청은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들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기술개발 및 품질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산하 기술품질원과 11개 지방 중기청이 보유한 8,708점의 첨단·고기능 설비들을 무료로 완전 개방한다고 발표했다.

특히 50인 이하 소기업에 대해서는 자체 기술개발이나 품질개선을 위해 제품의 시험분석을 의뢰할 경우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고 설비사용료도 받

지 않기로 했다.

또 소기업에서 원·부자재의 구입 또는 품질성능 확인, 납품 등을 위한 대외증명용으로 시험·분석을 의뢰할 경우도 현행 수수료의 50%만 받기로 했다.

중기청은 이번 조치로 시험설비구입 대체효과 200억원, 소기업에 대한 시험·분석수수료 감면 효과 10억원, 설비 무료사용 1억원 등 모두 211억원의 시험·연구·분석관련 비용 지원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